

구례군 지역상권 매출 코로나 前 상회

KB국민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1년 매출, 2019년보다 154억 ↑ 전남 시·군 봄철 유입인구 소비 1위

구례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구례군은 KB국민카드 빅데이터 솔루션 'DATAROOT'를 활용해 구례 지역 상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유입인구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례군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를 취소했고,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를 겪으면서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간매출이 106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작년보다 구례내내투어, TV 예능프로그램, 유튜브, SNS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연간매출이 약 154억원(10%)이 증가하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관광객이 몰리는 3월 산수유꽃과 4월 벚꽃 개화 시기에도 축제를 추진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축제 행사를 포기했던 2022년 관광객 소비가 약



구례 지역상권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유입인구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 오일시장. <구례군 제공>

78억원(29%) 증가했다.

산수유, 벚꽃 개화기간에 전남 유입인구 소비 1위를 기록했으며, 구례에 관한 관심과 방문이 크게 늘었음이 확인됐다.

섬진강 수해로 침수된 전통시장도 빠른 복구에 힘입어 2021년 연간매출이 2019년 대비 62% 증가했다. 전통시장의 활기는 올해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두 차례의 국가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구례군민 화합의 성과가 크게 뒷받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

20일 개최... 7일까지 신청

순천시가 오는 20일 '순천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과 바람직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카트라이더 2개 종목의 최강자를 가린다.

리그오브레전드는 단체전 5인 1팀으로 진행하며, 카트라이더는 개인전으로 진행한다.

대회 진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선과 결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그오브레전드 16개 팀 80명, 카트라이더 64명 총 144명을 선착순 모집해 14일 예선을 거쳐 20일 본선을 치른다.

순천시 거주 또는 순천시 권역 학교 재학 중인 12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7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e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대중 스포츠이자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며 "순천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진로 영역 확산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오지리 기차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0억원 투입 3만여 본 식재

"에메랄드 그린으로 구성된 숲, 기차 타고 눈으로 즐기고 몸으로 느껴보세요."

곡성군은 지난해 육과천에 이어 올해 오곡면 오지리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차단 숲<사진>은 기차마을에서 시작해 오지리 마을 옆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1.4km 구간에 에메랄드 그린을 주 수종으로 교목 242본, 소교목 868본, 관목 2만7875본 등 3만여 본으로 숲을 구성했다. 사업비는 기후대응기금으로 20억원이 투입됐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더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물의 생리적 기능과 모양, 숲의 구조적 구성은 미세먼지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도 총 3곳의 공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께도 쾌적하고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여수시, GS칼텍스·LG화학 3HP 화이트바이오 공장 투자유치 협약

여수시와 GS칼텍스, LG화학이 최근 3HP(친환경 바이오메틸칼 소재) 화이트바이오 공장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국내 3HP 화이트바이오 공장 설립 시 여수시를 우선 검토하기로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GS칼텍스와 LG화학은 친환경 원료 양산 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한 '3HP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가졌다.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3HP 실증 및 상업용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시에서는 이번 실증플랜트 구축이 향후 국내 3HP 화이트바이오 공장 설립 시 여수산단 내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친환경 신소재 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여수국가산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군 간부 공무원 친목회 장학금 기탁

보성군장학재단에 1000만원

보성군 간부 공무원 친목회(회장 부군수 박우욱)는 1일 (재)보성군장학재단에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보성군 간부 공무원 친목회 회원들이 지난 2년간 매월 납부한 회비를 모아 마련했다. 보성군 장학재단은 해마다 장학사업, 명문고 육성, 지역교육발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장학기금 목표액 200여원은 관내 출신 기업가들의 모교 인재 육성 기탁 특별지정 장학금과 보성군 간부 공무원 친목회 장학금 기탁 등으로 빠른 시일 내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소중한 성금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더욱 내실 있



는 교육 시책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보성군청 직원 약 50여명은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금으로 (재)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금을 납부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야경시티투어 2개 코스로 확대 운영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의 감성과 야경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광양야경시티투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2개 코스로 확대운영된다.

광양시는 금-일요일 단일코스였던 야경시티투어를 금-토는 기존코스로 운영하고, 일요일은 중마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변경해 운영하며 운영기간도 9월 18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중마관광안내소(오후 2시30분)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와인동굴,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구봉산전망대, 해오름육교, 삼화섬, 무지개리타운 등의 순서로 투어하고 중마관광안내소(오후 8시50분)에 도착한다.

순천역(오후 3시10분)에서 출발하는 기존코스

는 광양읍터미널(오후 3시30분)을 경유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와인동굴, 서천변 광양불고기특화거리, 구봉산전망대, 이순신대교, 선사인 해변공원 등으로 이어지며 광양읍터미널(밤 9시40분), 순천역(밤 10시)에 도착한다.

광양야경투어에 참여하려면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유선(061-761-7777)으로 예약해야 하고, 5명 이상 예약 시 운행하며 단체(20인 이상) 예약 시에는 평일에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군인·경로·학생 2000원, 장애인·미취학아동 10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